

| 이슈페이퍼 2022-05 |

#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

이정원

1. 배경 및 문제점
  2. 가정 내 영유아 미디어 이용 환경 분석
  3.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와 문제점
  4. 가정 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참고문헌



##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 ◆◆ 요약 ◆◆

- 영유아 가구가 보유한 미디어 기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보급률도 높아지는 경향이며, 영유아는 이러한 가정이 보유한 다양한 미디어에 이른 연령부터 노출되어 이용하고 있음. 미디어 이용 연령의 하향화에 따라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어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영유아 부모들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는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철학대로 지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이나 영유아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경험은 매우 낮고, 영유아를 지도하는 성인들의 미디어 이용 습관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이 나타남.
-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TV와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미디어는 각각 주중 평균 1시간 내외로 상당 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성을 의심해 본 경우는 20.1%, 실제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인 경우는 54.8%로 응답됨. 그러나 의심상황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확인한 경우는 17.6%, 전문적 상담·치료 경험은 12.7%로 전문적인 대응을 해본 경험은 낮게 나타남.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성인의 시간 확보를 위해 또는 영유아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의 목적으로 성인에 의해 노출된 측면이 있어 우려되는 상황임. 최초 미디어 이용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영유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영유아가 생활하는 가정 내 미디어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대상에 영유아 외 영유아 부모를 포함하는 등 부모교육 확대와 강화, 가정 내 미디어 이용 지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침의 마련과 배포 확대, 영유아용 콘텐츠 선별 기준 마련과 추천 콘텐츠 목록 제공 등을 제안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기본과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를 기반으로 작성됨.

## 1

## 배경 및 문제점

## 가. 영유아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보편화

## ■ 미디어 이용 시기의 하향화

- ◆ 정보통신기술과 뉴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미디어를 처음 이용하는 연령이 빠르게 하향화되고 있음(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13).

## ■ 영유아기부터의 미디어 이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4차 혁명의 시대에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역량으로 인식되면서 영유아기부터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교육콘텐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 ◆ 한편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도 미디어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기 시작하여(육아정책연구소, 2021: 38),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미디어 이용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임.

## ■ 가정 내 미디어 이용 환경의 고도화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접근성 증가

- ◆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어린이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0~9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 스마트폰(98.5%), TV(96.1%), 컴퓨터(84.9%), 태블릿PC(74.7%)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 인공지능 스피커(39.9%), 게임콘솔(32.4%), 가상현실 기기(5.6%)를 보유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 ◆ 2020년 어린이미디어 이용 실태조사에서 만3~6세 아동은 TV를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으며(만3~4세 89.6%, 만5~6세 89.7%), 다음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TV 다음으로는 만 5~6세는 스마트폰(81.4%), 태블릿PC(63.6%), 컴퓨터(42.5%)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만3~4세는 스마트폰(77.3%), 태블릿PC(60.8%), 인공지능 스피커(22.8%), 컴퓨터(21.2%)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정림·도남희·오유정(2013)의 연구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주로 TV와 스마트폰에 집중되었던 결과에 비해 2020년도의 취학 전 영유아들은 비교적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 즉, 새로운 미디어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가정에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제공되어 가정 내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 양상도 점점 더 다양화될 것으로 보임. 향후 TV 등 일반적인 스크린미디어 뿐 아니라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이용 접근성도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나.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 접근성 증가에 대한 우려

### ■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 ◆ 영유아 미디어 이용의 보편화와 이용 시작 연령의 하향화로 미디어 이용과 영유아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 이용하는 미디어의 콘텐츠와 이용 방법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Linebarger & Vaala, 2010: 배소영·정연구, 2015: 72에서 재인용) 영유아기 부터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배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연구에서는(이민주·이영신·유정은, 2015: 43; 배소영·정연구, 2015: 88; 이상희·오새니, 2019: 100; 이상희·이정미, 2019: 144) 미디어 이용이 과할 경우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 이에 미디어 이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의존적 경향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에 따른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 및 관리의 필요성과 이러한 지도·관리를 수행할 보호자(주로 부모)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 본고에서는 가정 내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환경을 적절히 조성하고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음.
- ◆ 이를 위해 조사업체 패널을 활용하여 전국의 0-6세 영유아의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미디어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총 12사례의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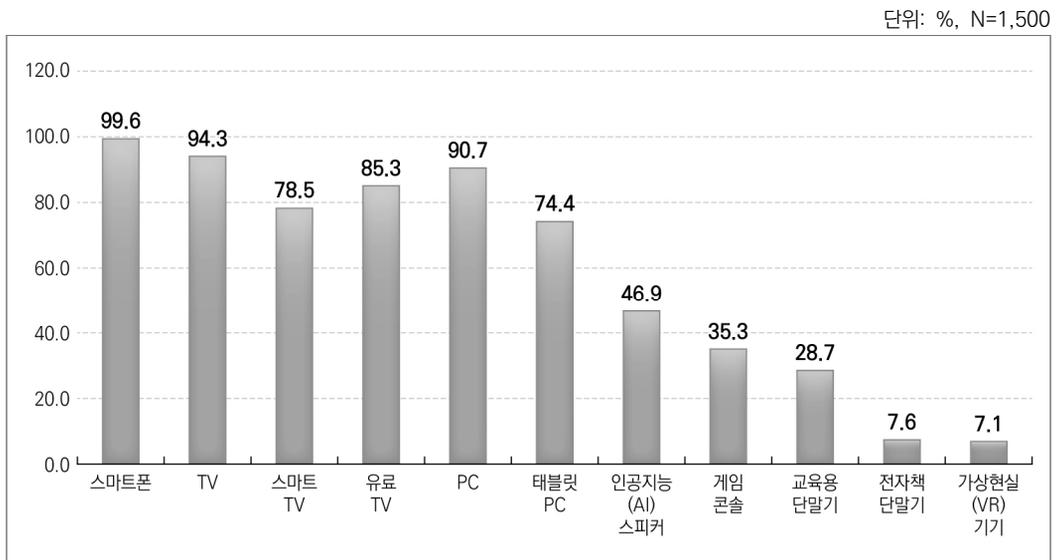
## 2 가정 내 영유아 미디어 이용 환경 분석,

### 가. 영유아 가정 내 미디어 보유 및 관리 현황

■ 보유 미디어가 다양하며 보유율이 높음

- ◆ 영유아 가정에서는 스마트폰(99.6%)<sup>1)</sup>과 TV(94.3%), 개인용 컴퓨터(90.7%), 태블릿 PC(74.4%) 등의 보유율이 매우 높고, 이외 인공지능 스피커(46.9%), 게임콘솔(35.3%), 교육용 단말기(28.7%), 전자책 단말기(7.6%), 가상현실 기기(7.1%) 등의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
- ◆ 영유아중 부모가 이용하던 스마트폰 공기계를 포함하여 영유아 본인용 스마트폰을 보유한 비율도 17.2%에 달함.

[그림 1] 미디어 유형별 가정 내 보유 현황



주: 1) 미디어 보유률은 전체 1,500사례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스마트폰 보유현황은 부모의 보유율임.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14 <표 III-2-1>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함.

1) 부모의 보유 현황임.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경험은 낮음

- ◆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중 영유아의 부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기기 비밀번호 설정’(39.4%)이었으며, ‘콘텐츠 제한(필터) 설정’은 36.1%, ‘미디어 이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앱 설치’는 23.0% 순으로 나타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았음.
- ◆ 기술적 방안을 모르는 경우는 20% 내외였으나, 미디어 이용 제한을 위한 기술적 방안들을 ‘알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40~50%에 달함. 기술적 방안들을 알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러한 조치를 활용하여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였음(50.2%).

〈표 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제한을 위한 기술적 방안 인지 및 적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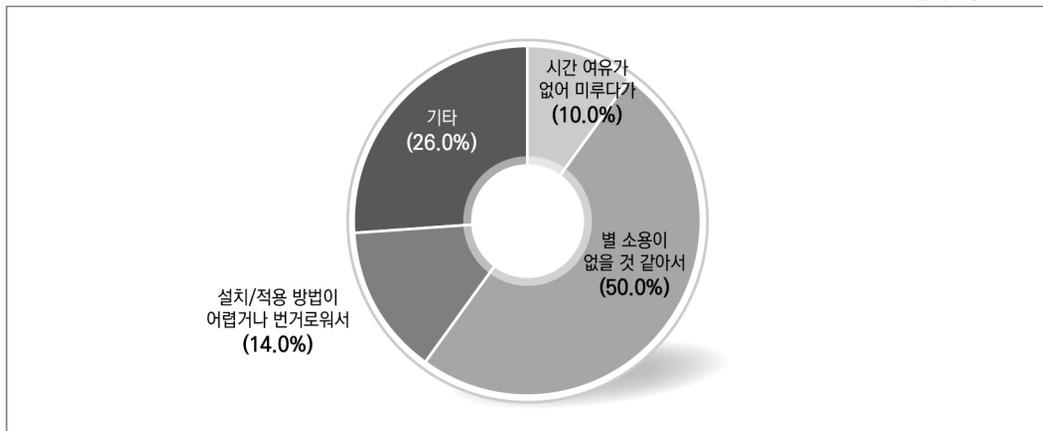
단위: %(명)

미디어 이용 제한 기술	모른다	알고 있지만 적용하지 않는다	알고 있으며 실제 적용해봤다	계(수)
1) 기기 비밀번호 설정	15.3	45.3	39.4	100.0 (1,500)
2) 콘텐츠 제한(필터)설정	19.1	44.8	36.1	100.0 (1,500)
3) 미디어 이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앱 설치	25.1	51.9	23.0	100.0 (1,500)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47. 〈표 Ⅲ-4-1〉

〈그림 2〉 미디어 이용 제한 기술적 방안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N=981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48 〈표 Ⅲ-4-2〉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함.

## 나. 영유아 주양육자의 미디어 이용 실태와 습관

### ■ 영유아의 주양육자는 하루 중 상당 시간 미디어를 이용함

- ◆ 주양육자는 미디어 중 스마트폰을 가장 장시간 이용하고 있어, 75.5%가 1일 평균 2시간 이상 이용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3.3%에 불과하였음. TV는 하루 1~2시간을 시청한다는 응답이 27.6%로 가장 많았으며, 스마트폰 다음으로 장시간 이용하는 미디어로 나타남.
- ◆ 이외 가정 내 보유 미디어 중 가상현실 기기(81.1%), 게임콘솔(62.6%), 교육용 단말기(51.5%), 태블릿 PC(51.4%)는 ‘하루 중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이상으로, 가정 내 보유는 하고 있으나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 미디어인 것으로 나타남.

〈표 2〉 가정에서의 미디어 종류별 보유 및 주양육자의 이용 현황

단위: %(명)

미디어 유형	보유율 <sup>주1)</sup>	주양육자의 1일 평균 이용시간						거의 이용 않음	(사례수)
		5시간 이상	3~4 시간	2~3 시간	1~2 시간	1시간 미만			
스마트폰	99.6 <sup>주2)</sup>	22.4	28.1	25.0	15.8	5.4	3.3	(1,495)	
TV	94.3							(1,415)	
스마트TV	78.5	7.6	12.8	21.0	27.6	15.8	15.1	(1,111)	
지상파 이외 유료 TV 사용 (케이블TV/IPTV/위성TV 등)	85.3								(1,207)
개인용 컴퓨터 (데스크톱, 노트북)	90.7	4.6	4.2	6.5	14.7	26.7	43.3	(1,360)	
태블릿 PC (교육용 단말기 사용 제외)	74.4	0.7	1.5	5.8	15.7	24.8	51.4	(1,116)	
인공지능 스피커	46.9	2.0	1.7	4.1	10.5	40.0	41.7	( 703)	
게임콘솔	35.3	0.2	1.1	2.6	11.2	22.3	62.6	( 529)	
교육용 단말기	28.7	0.2	1.4	6.0	13.5	27.4	51.5	( 431)	
전자책 단말기	7.6	0.9	0.0	5.3	16.7	28.9	48.2	( 114)	
가상현실(VR) 기기	7.1	0.0	0.0	1.9	2.8	14.2	81.1	( 106)	

주: 1) 미디어 보유률은 전체 1,500사례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스마트폰 보유현황은 부모의 보유율임.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14. 〈표 Ⅲ-2-1〉

- 많은 영유아 부모가 바람직하지 않은 미디어 이용 습관을 보이고 있음.
  - ◆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인 ‘누워서 미디어 기기를 사용’(중증+매번: 76.4%)하는 경우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잠자기 전의 미디어 이용’(중증+매번: 73.6%)하는 습관은 영유아 부모들의 보편적인 미디어 이용 습관으로 나타났다.
  - ◆ TV를 켜놓고 스마트폰을 동시에 검색하는 등의 ‘한 번에 여러 미디어를 동시 이용’하는 경우도 57.7%(중증+매번), ‘식사중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43.3%로 상당한 비율을 보임.
  - ◆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미디어 이용 지도에 앞서 성인이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보여 주는 미디어 이용 습관은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 환경으로 기능할 수 있음. 성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미디어 이용 습관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습관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할 수 있음.

〈표 3〉 영유아 가정에서의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단위: %(명)

성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	전혀 안함	거의 안하는 편	중증 하는 편	매번 함	계(수)
1) 식사중에 미디어 기기 <sup>주)</sup> 를 이용함	22.3	34.4	33.7	9.6	100.0(1,500)
2) 잠자기 전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12.0	14.4	38.7	34.9	100.0(1,500)
3) 운전중에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통화 제외)	45.7	32.8	17.2	4.3	100.0(1,500)
4) 누워서 미디어 기기를 이용함	9.9	14.7	48.5	26.9	100.0(1,500)
5) 한 번에 여러 미디어를 동시에 이용함 (예: TV를 보면서 스마트폰 검색)	19.5	22.8	43.0	14.7	100.0(1,500)

주: 미디어 기기란 스마트폰, TV, 태블릿 PC 등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15. 〈표 Ⅲ-2-3〉

#### 다.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현황

- 부모들은 영유아기 미디어 이용의 영향과 올바른 지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올바른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 가정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지도로 가장 잘 활용되는 방법은 ‘보호자가 있는 공간에서만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게 하기’임(항상 한다 52.3%, 자주 함 24.2%).

- ◆ 이밖에 ‘항상+자주’ 활용 비율이 높은 지도 방법은 ‘(미디어를)이용하지 않을 때 꺼놓기’ 67.8%, ‘보호자와 함께 이용’ 59.4%, ‘유해하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이 58.7%, ‘자녀가 이용한 콘텐츠 확인’ 54.3%, ‘보호자와 이용 콘텐츠 함께 고르기’ 53.3%, ‘보호자가 자녀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기’ 48.1%, ‘미디어 이용 시간 제어 앱 활용한 이용 시간 관리’ 35.1% 순으로 나타남.

〈표 4〉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방법별 경험 정도

단위: %(명)

지도 방법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가끔 함	③ 자주 함	④ 항상 함	③+④	계(수)
1) 보호자와 함께 이용	7.6	33.0	31.9	27.5	59.4	100.0 (1,500)
2) 보호자와 이용 콘텐츠 함께 고르기	15.8	30.9	28.4	24.9	53.3	100.0 (1,500)
3) 보호자가 자녀와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하기	20.3	31.7	29.9	18.2	48.1	100.0 (1,500)
4) 유해하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사이트, 앱 차단	28.3	12.9	15.5	43.2	58.7	100.0 (1,500)
5) 자녀가 이용한 콘텐츠 확인	23.9	20.7	24.3	31.0	54.3	100.0 (1,500)
6) 미디어 이용 시간 제어 앱 활용 이용시간 관리	49.3	16.5	14.4	19.7	35.1	100.0 (1,500)
7)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꺼놓기	19.5	12.7	17.5	50.3	67.8	100.0 (1,500)
8) 보호자가 있는 공간에서 이용하게 하기	11.6	11.9	24.2	52.3	76.5	100.0 (1,500)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51. 〈표 Ⅲ-4-3〉

- ◆ 또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부모들이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미디어 콘텐츠가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지를 ‘항상+자주’ 확인한다는 비율이 64.1%에 달함. 6.7%는 어린이용 콘텐츠 외에는 아예 차단되도록 조치한다고 응답함.
- ◆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콘텐츠의 연령별 적합성을 확인하는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취업모 가구보다는 미취업모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남. 또한 첫째 자녀에 대해 둘째 자녀 이상보다, 유아보다는 영아에 대해 확인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 가구 특성과 자녀 특성에 따른 관심도의 차이가 나타남.

〈표 5〉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연령적합성 확인 정도

단위: %(명)

구분	항상 확인함	자주 확인함	가끔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어린이용 콘텐츠 외에는 차단되도록 조치함	계(수)
전체	36.6	27.5	21.0	8.2	6.7	100.0 (1,500)
응답자 성별						
남성	31.1	26.3	26.1	9.3	7.2	100.0 ( 601)
여성	40.3	28.3	17.6	7.5	6.5	100.0 ( 899)
$\chi^2(df)$				23.075***(4)		
응답자 연령대						
20대	44.4	25.9	7.4	7.4	14.8	100.0 ( 27)
30대	38.2	26.6	18.8	9.2	7.2	100.0 (1,039)
40대	32.3	29.7	27.2	5.8	5.1	100.0 ( 434)
$\chi^2(df)$				26.625**(8)		
모취업 여부						
취업	33.9	27.1	24.9	7.6	6.4	100.0 ( 654)
미취업	38.6	27.9	17.9	8.7	6.9	100.0 ( 842)
$\chi^2(df)$				11.434*(4)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42.7	20.0	14.0	14.2	9.1	100.0 ( 536)
유아(36개월 이상)	33.2	31.6	24.9	4.9	5.4	100.0 ( 964)
$\chi^2(df)$				88.692***(4)		
출생순위						
첫째	42.5	24.1	17.9	9.2	6.3	100.0 ( 727)
둘째 이상	31.0	30.7	23.9	7.2	7.1	100.0 ( 773)
$\chi^2(df)$				28.007***(4)		

\*  $p < .05$ , \*\*  $p < .01$ , \*\*\*  $p < .001$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52. 〈표 III-4-4〉

## 라.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철학의 형성 경로

- ◆ 영유아 부모 심층면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철학은 전문가의 권고, 뉴스·신문기사 등의 관련 내용들을 실생활에 적용, 기준의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형성되게 됨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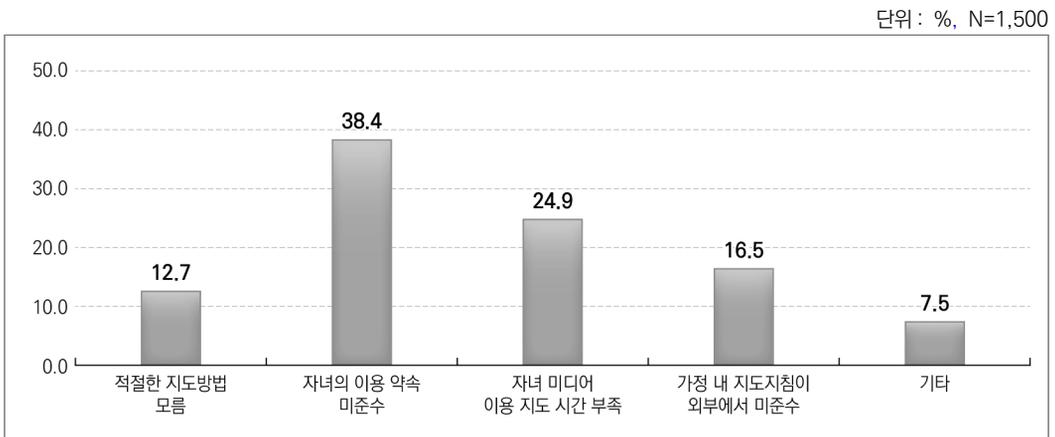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혹은 뉴스나 이런걸 보면 팝콘 브레인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애들을 보다 보면 무분별하게 자극적인거에 노출되고 그럴다더라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럴다면 우리는 자기 전에 30분 정도는 항상 책을 읽어주자.” 이렇게 (부부간에) 합의가 된거고 또 이렇게 실천을 한거죠.[서울 거주, 6세 여아]

영유아 검진때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신게 가장 컸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깐 말이 트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된거죠. 미디어는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는. [전북 거주, 6세 남아]

### 마. 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의 애로사항

- 영유아의 부모들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관한 지도방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음.
- ◆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 지도에서 자녀가 이용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데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8.4%), 이외 가사 일 등으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할 시간의 부족(24.9%), 집에서의 지도 방침이 외부에서 지켜지지 않는 점(16.5%), 적절한 지도 방법을 모름(12.7%)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자기조절력을 키우고 부모가 적절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과 관련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그림 3]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 지도에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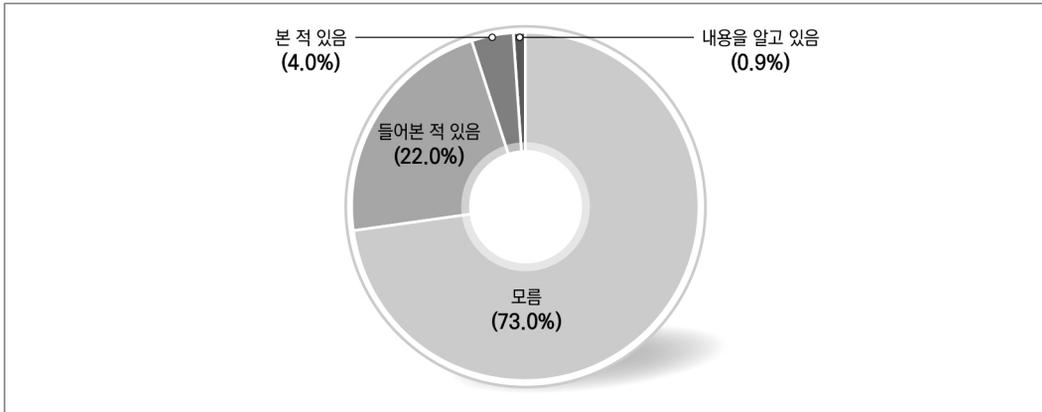
주: 자료 표의 전체 수치만을 제시함.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218. <표 V-1-1>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

- 영유아를 위한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의 인지 및 활용도, 관련 부모교육 경험이 매우 낮음.
- ◆ 가정에서 부모들이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미디어 환경의 조성 and 바람직한 미디어 이

용을 지도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관련 가이드라인(‘영유아용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등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경우는 0.9%로 극히 낮았음.

[그림 4]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 인지 여부

단위: %, N=1,191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54. <표 Ⅲ-4-5>의 전체 수치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

- ◆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받은 경험도 16.3%에 불과하였음. 특히 미디어 이용 지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저학력 부모,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기관 미이용 영유아의 부모 등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이 낮은 부모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3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와 문제점

#### 가. 미디어별 이용 실태

- 영유아는 비교적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며, 주요 미디어를 대부분 영아기부터 이용하기 시작하고,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가정에서 해당 미디어를 보유한 경우 영유아의 이용률은 교육용 단말기가 82.8%로 가장 높고, TV(79.0%), 태블릿 PC(58.1%), 스마트폰(44.6%), 게임콘솔(40.5%), 인공지능 스피커(38.5%), 전자책 단말기(24.6%), 개인용 컴퓨터(11.3%), 가상현실 기기(6.6%) 순으로 나타남.
- ◆ 보유율이 낮은 교육용 단말기를 제외하고, 가정에서 영유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TV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주중 약 1시간 18분, 주말 2시간 11분에 달하며, TV 시청 시작 시기는 생후 6개월~18개월 미만인 경우가 57.6%인 것으로 나타남.
- ◆ 스마트폰·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기기는 생후 12~18개월 미만에서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2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주중 55.3분, 주말 97.6분으로 나타남.

〈표 6〉 영유아의 하루 평균 TV/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 시간

단위: 분

	주중(월~금) 1일 평균 이용시간	주말(토, 일) 1일 평균 이용시간
TV	78.1(약 1시간 18분)	131.4(약 2시간 11분)
스마트폰·태블릿PC	55.3	97.6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22. 〈표 III-3-8〉, p.132. 〈표 III-3-17〉을 조합하여 구성함.

〈표 7〉 영유아의 TV/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 시작 시기

단위: %(명)

구분	생후 6개월 미만	6개월~12개월 미만	12개월~18개월 미만	18개월~24개월 미만	24개월~36개월 미만	만 3세 이상	계(수)
TV	6.2	28.2	29.4	14.4	12.1	9.7	100.0 (1,118)
스마트폰·태블릿PC	4.8	12.9	20.5	13.4	17.6	30.7	100.0 (1,496)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20. 〈표 III-3-6〉, p.131. 〈표 III-3-16〉을 조합하여 구성함.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목적은 주로 ‘동영상 시청’임.

- ◆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오직 동영상 시청을 위한 미디어 기기인 TV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지닌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경우에도 영유아는 주로 ‘동영상’ 시청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 영유아가 스마트폰·태블릿PC를 이용하는 주된 용도는 ‘동영상(애니메이션, 유튜브, 동영상 등)시청’이며, SNS나 메신저 이용, 웹툰·웹소설 보기, 인터넷검색, 교육용 앱 이용, 게임·놀이로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함.

〈표 8〉 용도별 영유아의 스마트폰·태블릿 PC 이용정도(하루 기준)

단위: %(명)

구분	전혀 이용 않음	10분 이내	10분~ 30분 이내	30분~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계(수)
1) 인터넷 검색(학습, 관심사 등을 위한 정보 찾기)	73.3	13.5	8.4	3.5	1.2	100.0 (1,496)
2) 동영상 시청	14.1	11.8	25.7	28.5	19.9	100.0 (1,496)
3) 게임, 놀이	54.1	11.4	17.3	11.4	5.9	100.0 (1,496)
4) 교육용 앱 이용	57.6	10.6	19.5	9.4	2.9	100.0 (1,496)
5) SNS 이용(소통)	94.2	2.5	1.7	1.1	0.5	100.0 (1,496)
6) 메신저 이용 대화(카톡, 라인 등)	90.2	5.0	2.5	1.8	0.5	100.0 (1,496)
7) 사진, 동영상 촬영	49.4	37.9	9.7	2.3	0.7	100.0 (1,496)
8) 통화	69.7	23.5	5.2	1.3	0.3	100.0 (1,496)
9) 웹툰, 웹소설 보기	96.0	1.7	1.3	0.8	0.2	100.0 (1,496)
10) 기타	95.8	1.6	1.4	0.5	0.7	100.0 (1,496)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27. 〈표 III-3-12〉

■ 성인의 시간확보와 편의를 위해 영유아에게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됨.

- ◆ TV,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미디어 이용을 영유아에게 허용하는 목적은 ‘보호자의 일을 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TV 79.8%, 스마트폰·태블릿PC 70.2%), 이외 ‘(영유아가)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남(TV 57.8%, 스마트폰·태블릿PC 56.2%). 또한 스마트폰·태블릿PC의 경우 휴대성으로 인해 식당, 카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조용히 시키기 위한 용도로 가장 많이 허용되고 있었음(74.3%).

〈표 9〉 영유아에게 미디어 이용을 허용하는 목적별 경험

단위: %(명)

허용 목적	TV	스마트폰·태블릿PC	계(수)
1)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22.1	9.8	100.0 (1,496)
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등원 준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39.1	22.7	100.0 (1,496)
3) 자리에 앉아 식사를 빨리하게 하기 위해	37.6	38.2	100.0 (1,496)
4)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시키기 위해(식당, 카페, 병원, 관공서 등)		74.3	100.0 (1,496)
5) 보호자의 일을(예: 식사준비, 청소, 업무) 자녀의 방해 없이 하기 위해	79.8	70.2	100.0 (1,496)
6) 교육용 어플, 동영상 이용, 온라인 수업(Zoom 등을 활용)을 위해	47.7	52.0	100.0 (1,496)
7)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상으로 이용하게 함	57.8	56.2	100.0 (1,496)
8) 잠을 재우기 위해	8.5	12.1	100.0 (1,496)
9)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원할 때 허용함	49.4	42.4	100.0 (1,496)
10) 기타	2.8	5.1	100.0 (1,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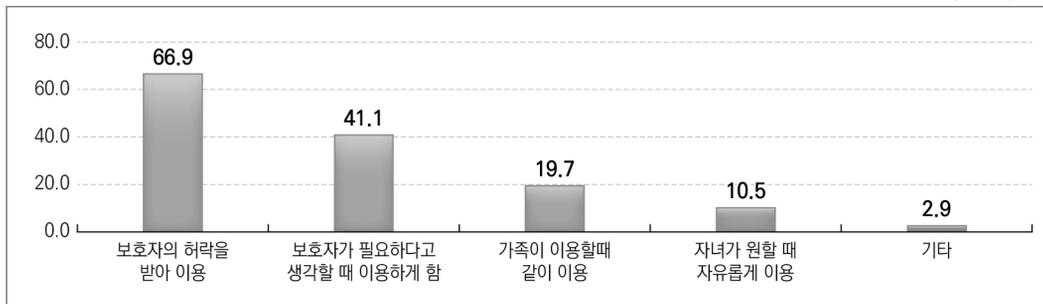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30. 〈표 III-3-14〉

■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은 대부분은 보호자의 관리 하에 이루어짐.

- ◆ 영유아의 가장 주된 미디어 이용 방법은 ‘영유아가 원할 때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임(66.9%). 이외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녀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41.1%, ‘가족이 이용할 때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19.7%로 보호자의 인지 등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 단, ‘영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함’이라는 응답도 10.5%로 응답되어 보호자의 인지나 어떠한 관리 없이 방치되듯이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냄.

〈그림 5〉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방법(중복응답)

단위: %, N=1,500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38. 〈표 III-3-25〉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나. 코로나19의 영향

-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증가함.
  - ◆ 영유아 중 66.8%가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이용이 증가함.
  - ◆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1순위)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심심해해서’(78.8%)이며, 영아는 ‘양육자와 미디어를 함께 이용할 기회가 많아져서’(10.6%), 유아는 ‘원격수업/온라인 학습지로 미디어에 친숙해져서’(10.4%)가 두 번째로 많이 응답되었음.

〈표 10〉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미디어 기기 이용이 증가한 이유(1순위)

단위: %(명)

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심심해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나 책임기보다 미디어를 이용한 영상 시청, 놀이를 더 좋아해서	원격수업, 온라인 학습지를 하게 되어 미디어 기기에 친숙해져서	양육자가 이용하는 미디어를 같이 이용하게 될 기회가 많아져서	기타	계(수)
전체	78.8	5.0	8.5	6.8	0.9	100.0(1,002)
아동 연령						
영아(0-36개월 미만)	81.6	3.5	3.5	<b>10.6</b>	0.7	100.0( 282)
유아(36개월 이상)	77.8	5.6	<b>10.4</b>	5.3	1.0	100.0( 720)
$\chi^2(df)$			22.019***(4)			

\*\*\*  $p < .001$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140. 〈표 III-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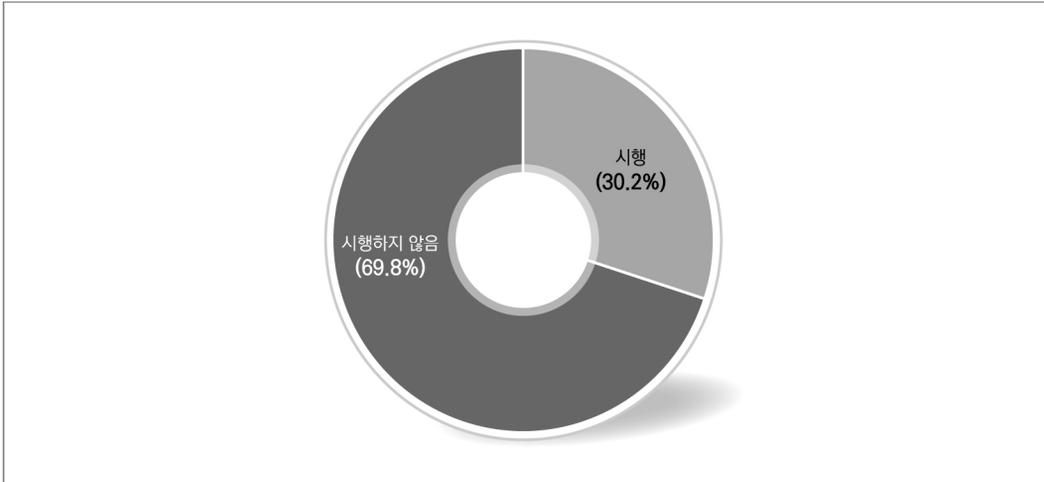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시행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코로나19 이후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sup>2)</sup>에서 원격수업을 시행한 경우는 30.2%였으며, 원격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평소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에 비해 이용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6.1%임.

2) 반일제 이상 기관, 시간제 학원 모두 포함

-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 원격수업 활용이 불가피해지면서 영유아의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됨.

[그림 6] 코로나19이후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에서의 원격수업 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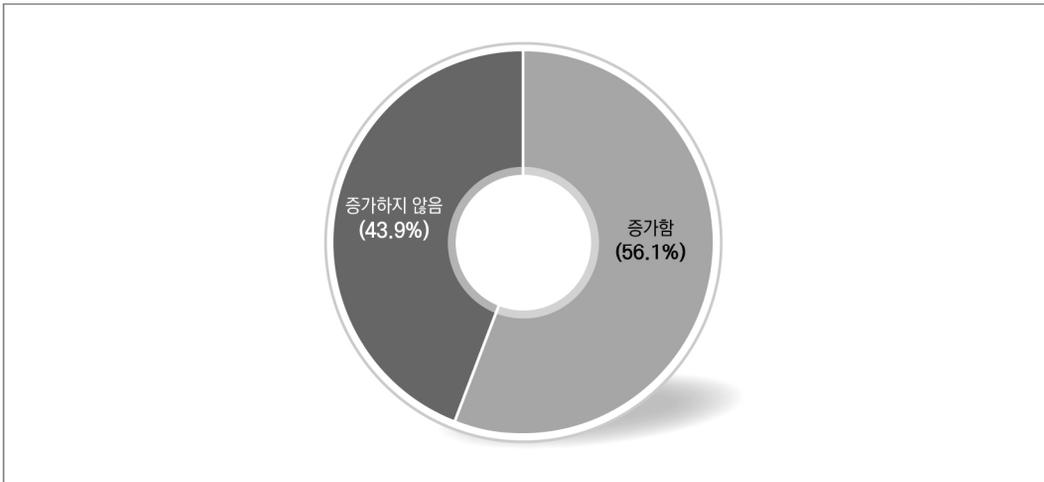
단위: %, N=1,222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43. <표 III-3-32>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그림 7] 원격수업 시행으로 인한 자녀의 미디어 기기 이용시간 증가 여부

단위: %, N=369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144. <표 III-3-33>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다.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현황과 대처 실태

- 가정과 기관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 영유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경험 및 과의존 의심 행동 비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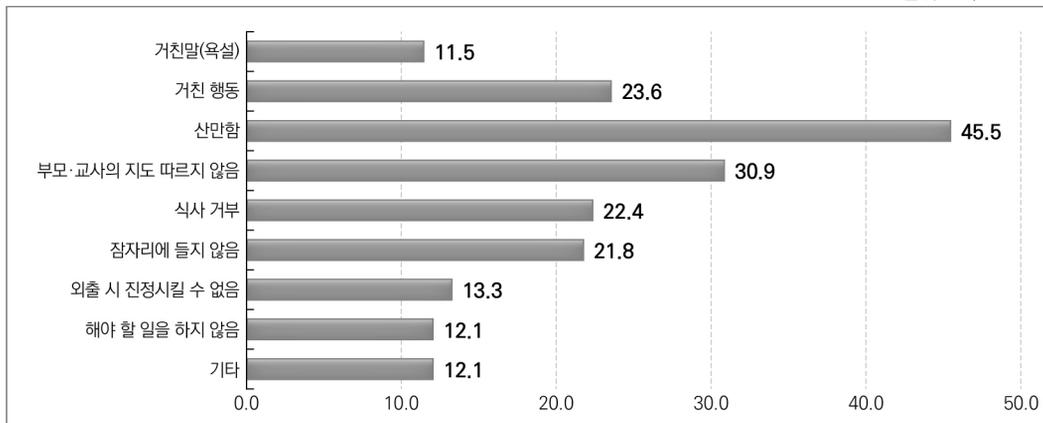
영유아 미디어 과의존 의심 경험 비율	(사례수)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 비율	(사례수)
20.1	(1,500)	54.8	(301)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220. 〈표 V-3-1〉

- ◆ 영유아 부모 대상의 조사 결과,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이나 영유아를 돌봐주는 사람, 부모 자신이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성을 의심해 본 경우가 20.1%, 이중 영유아가 실제 미디어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인 경우는 54.8%로 응답됨.
- ◆ 가장 많이 발견되는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은 ‘산만함’으로 45.5%를 차지함. 이외 ‘부모나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음’ 30.9%, ‘거친행동(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공격 행동)’(23.6%),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면 식사를 안함’(21.8%), ‘외출시 미디어를 보여주지 않으면 진정시킬 수 없음’ (13.3%) 등이 주요한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으로 응답됨.

〔그림 8〕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 양상(중복 응답)

단위: %, N=165



주: 5)-8)은 영유아에게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의 행동을 의미함.  
 자료: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223. 〈표 V-3-4〉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 ◆ 이는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심일 뿐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함.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보육·교육기관이나 부모들이 영유아 시기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한 상당한 인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 과의존으로 의심되는 행동 중 산만함이나 공격적인 행동 외에도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식사, 수면 등 영유아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생활습관을 해치는 행동’이 적지 않게 관찰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
-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한 적극적·전문적인 대처 경험은 미흡하였음.
  - ◆ 영유아가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을 보인 경우 ‘미디어 과의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확인해 본 비율은 17.6%에 불과하였고, ‘전문적 상담·치료’를 받은 경험도 12.7%로 낮게 나타남.
  - ◆ 과의존 위험성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높은 수준임에 비해 정보 부족이나 영유아의 발달상 특성과 혼동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12〉 미디어 과의존 의심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한 대처 경험

단위: %(명)

미디어 과의존 체크리스트 확인 여부		전문적 상담·치료 경험 여부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7.6	82.4	12.7	87.3	100.0 (165)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223. 〈표 V-3-4〉.

## 4

### 가정 내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 여기서는 상기한 영유아 가정의 미디어 환경 및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가 생애최초로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게 되는 미디어 환경의 적절한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 가.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교육 확대와 교육 기반 조성

- 기관 이용, 미이용 영유아의 부모에 적합한 부모 대상 가정 내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함.
- ◆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54조에 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 외에 ‘영유아 부모’를 의무 교육 대상으로 추가하여 보육·교육 기관 이용 영유아 부모 대상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제공을 의무화할 것으로 제안함.

〈표 13〉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변경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기관 이용 영유아	기관 이용 영유아, 영유아의 부모
비고		- 영유아 연령별 교육 내용의 차별화 - 전문화, 심화된 시리즈 교육 개발 -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내용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242. 〈표 VI-2-1〉.

- ◆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에 비해 부모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는 기관 미이용 영유아 부모 대상의 미디어 이용 지도 교육 제공 방안으로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한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제안함.
- ◆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시 ‘전자미디어 노출’에 대한 건강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2차(4~6개월)과 4차(18~24개월), 7차(66~71개월) 사이의 간격이 다소 긴 편으로 3차와 5차 정도에 추가 교육을 마련할 것으로 제안함. 특히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생후 18개월 내외의 교육 회수를 증가시켜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음.

〈표 14〉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전자미디어 노출’에 대한 건강 교육 및 상담 강화(안)

	제공 회차						
	1차 (생후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

출처: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이정원·박원순·엄지원, 2021)」, p. 243. 〈표 VI-2-2〉.

■ 미디어 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욕구에 맞는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으로 제안함.

#### 나. 가정 내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기준과 지침 마련·배포

■ 원격수업 활용에 따른 가정용 미디어 이용 지침 개발·배포와 교육 제공

- ◆ 원격수업을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도 시도함에 따라 원격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미디어 기기의 관리방법과 영유아가 수업 외 불필요한 미디어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지도 상의 유의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원격 수업 활용에 따른 가정용 미디어 이용 지침’의 개발과 배포를 제안함.

■ 기 개발된 영유아 부모용 영유아 미디어 이용 지도 가이드라인 배포 확대와 인지·활용도 제고

- ◆ 유치원·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부모교육 시 자료로 배포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출생신고 등의 기회를 통해 가급적 빠른 배포와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함.

#### 다. 영유아용 콘텐츠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조치 마련

■ 영유아용 연령별 적합한 미디어 콘텐츠 선별 기준 개발을 통해 취학 아동과 구분되는 영유아용 콘텐츠를 선별하여 연령별 추천 콘텐츠 목록 제공

- ◆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5항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의 분류기준을 세분화하여 취학 전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 제공을 제안함.
-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영유아의 건전한 미디어 이용을 돕기 위해 이러한 연령 기준에 의해 유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연령별 추천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함.

## I 참고 문헌 I

- 배소영·정연구(2015). 미디어 이용은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는가? 텔레비전, 스마트폰, 책 읽어주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6), 67-93
- 육아정책연구소(2021). 교육 대전환 시대, 영유아 디지털 교육보육 정책의 현재와 미래. 2021 육아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 이민주·이영신·유정은(2015). 유아의 미디어 이용시간 및 성별에 따른 언어 발달 차이. *열린부모 교육연구*, 7(3), 37-52.
- 이상희·오새니(2019). 유아기 미디어 이용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8(2), 89-108.
- 이상희·이정미(2019).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시간의 매개효과 검증. *어린이미디어연구*, 18(3), 135-160.
- 이정림·도남희·오유정(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박원순·엄지원(2021).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 적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Linebarger, D.L.&Vaala, S.E.(2010). Screen media and Language development in infants and toddlers: An ecologic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30(2), 176-202.